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88

예수님의 열두 제자

(마태복음 9:9~13, 10:1~42,
마가복음 2:14~17, 3:13~19, 6:7~13,
누가복음 5:27~6:16, 9:1~6)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관이 있는 길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으휴, 저 날 강도 같은 세리 녀석! 서민들
등골이나 배배먹고 말아야!”**
**“저런 로마제국의 앞잡이들은
나중에 천벌을 받아야 돼!”**

사람들이 수군수군 한 사람을 홍보고 있었어요.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는 ‘마태’라는 사람이었죠.
세리는 간단히 말해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어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는 세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어요.

세리, ‘마태’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 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의미했어요.
과연 마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죄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다니!’**

**마태는 너무나도 기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금 장부도 걷어둔 돈도 내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는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초대를 받았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언짢은 얼굴로 말했어요.**

**“어째서 저 분은 악독하기 그지없는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시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는 걸 보았느냐?
의사는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법이다.
나도 마찬가지니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변화시키러 온 것이라.”**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속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괴씸해할 뿐이었어요.

얼마 후,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제가 올바른 제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밤이 새도록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느새 날이 밝아왔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부르셨어요!
어느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부르셨어요!
어느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중에 열 두 명의 제자를 따로 뽑으셨고
그들에게 나쁜 영혼을 쫓아버리는 능력,
그리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12사도’라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죠.**

**“나는 베드로! 제자들의 리더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 얘기 알죠?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는 베드로 형의 동생 안드레예요!
형과 함께 물고기 잡는 일을 했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불린답니다!”**

**“제자 중에 형제라면 우리도 있죠!
저는 형 ‘야고보’구요, 예수님 곁은
제가 무조건 지킬 겁니다,으헤헤헤.”**

**“저는 동생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라고들 하죠.
성경에 ‘요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 제가 쓴 거예요!”**

**“저도 있어요! 안드레와 친구 사이인 저 빌립!
알렙바이블을 열심히 봤다면 기억하겠죠?”**

**“나는 ‘바돌로매’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도 하죠.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세리 출신 ‘마태’입니다.
신약성경의 가장 처음인 마태복음을 썼죠.”**

**“제 이름은 ‘도마’입니다.
성격이 불 같고 때론 엉뚱하기도 하지만
‘의리’하면 바로 이 ‘도마’라구요.”**

**“저는 ‘야고보’라고 합니다.
아, 앞에 나온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구요
저는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헛갈리지 마세요, 헤헤.”**

**“저는 시몬입니다.
한 때 로마제국의 통치에 저항한
‘열심당’이라는 곳에서 활동했었죠.”**

**“‘다대오’라고 해요.
저 역시 알패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나온 야고보와는 형제 사이라구요!”**

**“끝으로! 저는 유다입니다.
가롯 지방 출신이라 ‘가롯 유다’라고 불리죠.
저는 이 모임에서 돈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이고.
뭐, 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알게 될 겁니다. 킬킬.”**

이렇게 열 두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서는
왜 선택하신 걸까요?

바로, 아주 아주 중요한 미션을 내리기 위해서였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서는 열 두 제자를 불러 모아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은 양과 같단다.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는 둘 씩 짝지어서 여행을 떠나거라.”**

“여행을 떠나서 저희가 무얼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려주거라.
아픈 사람들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며
악한 귀신을 쫓아내거라.
검소한 차림으로 다닐 것이며
이 모든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해야 한다.
너희도 이 모든 은혜를 거저 받지 않았느냐.”**

**그 때, 예수님의 특별한 미션을 받은
제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때부터 제자들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고 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죠.

“아휴..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요, 저희한테 고마워하지 마시고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헤헤헤.”

그리고 제자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열 두 제자들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동안의 죄를 뉘우쳤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